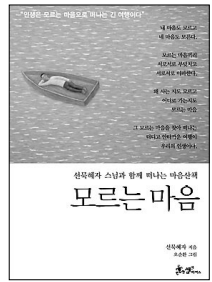


“인생은 모르는 마음으로 떠나는 긴 여행”

모르는 마음

선목해자 스님 지음 | 쌤앤파커스 펴냄 | 1만 5천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를 내려놓고 마음 비우는 연습을 하세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랑과 행복, 자비가 내 마음 속에 가득 넘쳐나를 걸 알 게 됩니다.”



9년에 걸쳐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이끌며 지난 10월 25일 대장정의 막을 내린 회주 해자 스님(사진)은 불교계 신형 문화를 바꿔 놓는데 큰 공을 세웠다. 사찰 순례에 동원된 버스만 총 1만1664대, 왕복 순례거리 817만km(지구를 204바퀴 돈 거리)등 각종 진기록도 수립했다. 사찰 순례가 많지 않았던 시절 선목해자 스님의 108산사 순례는 흥행 풍경을 일으키며 지역 사찰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언제 책을 쓸 시간이 있었을까 의아했지만 선목해자 스님은 틈틈이 산사(山寺)의 시인이 되어 시와 에세이를 펴냈다.

이번에 출간한 <모르는 마음>도 선목해자 스님의 에세이집이다. 50여 년에 걸친 수행의 지혜가 녹아 있는 96편의 시와 에세이는 우리의 잠든 눈을 깨우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통찰로 가득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네 마음도 모른다. 모르는 마음끼리 서로서로 부딪치고 서로서

50년 수행지혜 96편 시와 에세이로 삶, 죽음, 행복, 비움 등 다양한 주제 오순환 화백 그림 독서미각 돋움

어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홀로 책을 읽거나 창을 바라보며 그리운 이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한 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미소를 짓는 일입니다. 이렇듯 산다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버리는 일입니다.”

또한 스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말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대를 기억하던 사람이 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기억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이런 이별을 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많은 사람이 이 참담한 고통에 무너지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생즉필멸(生即必滅),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야 합니다. 그 죽음을 초월도 훌훌 놓아버려야 합니다.”라고 조언한다.

욕망에 대한 선목해자 스님의 법문에선 고개가 끄덕여 질 정도로 공감하게 만든다. “인간의 욕망이란 게 이렇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욕망과 행복은 언제나 반비례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나는 가장 적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과 친숙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고승 <화남자(淮南子)>에서도 ‘대지의 곡식을 다 주고 강물을 다 준다면, 배를 채우는 것은 한 줌의 곡식이며 갈증을 달래주는 것은 한 사발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재물과 몸을 누일 집 한 채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시지 마실수록 더 목이 타는 바닷물을 벌벌벌컥 들이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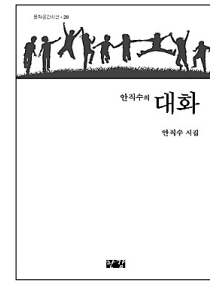
한편 청담 스님은 은사로 열네 살 때 동진 출가한 스님은 오십여 년 간 오직 수행에 정진하면서도, 대중 불사에도 앞장서서 실천하는 ‘국민스님’으로 불린다. 특히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를 결성, 2006년부터 9년 동안 한국의 명사찰들을 회원들과 함께 순례했는데, 여기에 동참한 신도만도 무려 60여 만 명에 이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유와 공생의 詩心으로 빚어낸 우리들 삶의 이야기

안직수의 대화

안직수 지음 | 한강 펴냄 | 1만원



안직수 기자(사진)는 꿈이 많은 인물이다. 그래서 참 바쁜 사람이다. 사단법인 1길벗 상임이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자신의 고향인 수원 서도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은 그 전에 그가 가장 먼저 꿈꾼 것은 시인이었다. 그는 고등학교때부터 오랜시간 '시' 라는 화두를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탓에 문학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1996년 월간 <문학공간>을 통해 등단한 뒤에도 시를 쓰지 못했다. 등단한지 20년이 넘었지만 그가 시인인지 아닌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다.

본격적인 그의 시 습작은 그의 말을 빌리자면 2010년부터 엮었다고 한다. 불교언론계 선배의 절박한 메일이 그의 잠들었던 시심을 흔들어 깨웠다. “힘들 때 시를 써 보라”는 것이었다.

이후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인 '시와 사람들'에서 활동하며 한 달에 한두어 편 습작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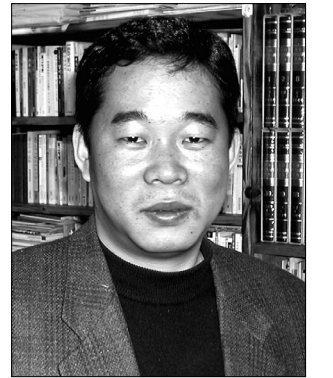
저자는 “마음에 파동이나 격랑이 일 때 글을 한 편 쓰고 나면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 같다. 그렇지만 내 이야기를 쓰기보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저자는 덧붙인다. “시집의 제목을 대화라고 붙인 것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다. 우리 사회의 무너져 버린 가치관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싶었다. 또한 삶의 행복의 근원인 가족에 대한 생각,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는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고 속내를 피력했다.

그래서 그의 시에서 주목되는 주제는 ‘삶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화두 식의 질문이다. 이에 대한 시인의 답은 간단 명료하다.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란다. 거기엔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의 공생 언어가 직조돼 있어 읽는 내내 감동을 자아낸다.

“별이 된다/희미한 가로등 의지해/고갯길 오르느/가난의 뒷에 걸린 저 아이 붉은 뺨에/입맞춤하고 싶다(종락)”

안 시인에게 있어 별은 희망이다. 안 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해 “힘들고 지친 이웃을 위해 내가 당신의 별이 되자”고 말한다. 그러한 시인의 마음은 <가난을 위한 기도> <봄날에는> 등의 시에서도 읽을 수 있다.

고은 시인은 안 시인의 작품에 대해 “삶



의 그늘, 삶의 비탈에 유난히 집중된 눈길이 닿아 있는 작품들이 하나 둘이 아니니, 이 나라 의명의 서민 서사를 시집 속의 많은 작품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그런가 하면 가령 ‘등산’ 같은 거두절미의 핵심을 기껏 4행쯤으로 부려 놓은 단호한 기법도 놀랍다”고 평했다.

“오르다가/힘겨워 짐 내려놓고/간식 꺼내 먹으면/그곳이 정상이다”(등산 전문). 이 시를 몇 번이고 음미해 보면 과연 그의 기지와 총괄적인 같은 시집에 대 시인의 평이 인사치레의 과찬이 아님을 단박에 알 수 있게 한다.

안시인의 시세계는 최광호 한국문화예술연대 이사장(시인)의 서평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최 이사장은 “안 시인은 여러

삶의 근원 '행복' 가족 등 시 소재 간결하면서 정돈된 축약의 미 돋보여

시 편에서 다양한 시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시집의 주제가 ‘대화’인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우리 어머니/참 고우시다/살이 더 고우시다’와 같은 ‘어머니’의 시에서 간결하면서 정돈된 축약의 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안 시인의 시집 주제어 가운데 또다른 하나가 더 있다. 바로 ‘가족’이다. 가족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 애뜻함을 갖는다.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때로는 다루고 갈 못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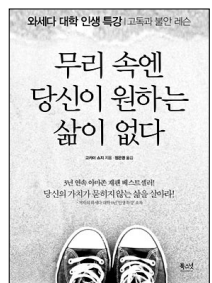
안 시인은 가족의 존재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화두를 던진다. 그리고 가족의 일상을 수채화처럼 그려내면서 그의 미를 독자와 공유한다. 고인이 된 아버지를 위해 감나무 후시를 남기는 시인의 마음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다. 기름기 뺀 담백한 평이 한 시어의 조합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시로 담아낸 안 시인의 작품들을 이 쓸쓸한 가을에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이 아닐까 싶다. 원지모를 허전 한 텅빈 만두 속 같은 마음을 꼭 채워주니 말이다.

김주일 기자

고독과 불안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우리 속엔 당신이 원하는 삶이 없다

고카미 쇼지 지음 | 정은영 번역 | 북스넷 펴냄 | 1만 1200원



어느 나라에 살든, 나이가 젊든 연륜이 있든, 남자든 여자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곡예 길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당사자에게 위대한 철학적 가르침이나 종교적 믿음은 받아들이기 버거운 생각의 짐만 더 쌓이게 만든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 고

민상담소를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의 주제는 고독과 불안이었다. 그러한 학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와세다 대학 측은 고독과 불안을 주제로 인생 특강을 개설했는데, 이 책은 저자가 와세다 대학에서 6년 동안 강연한 바로 그 인생 특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시종일관 부드럽고 상냥한 어조로 삶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왜 가짜 고독에 휘둘리는가, 자신의 가치가 묻히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어떻게 사람을 성장시키는가,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은 무엇인가, 무리 밖의 삶은 왜 더 빛나는가 등,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독과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 ‘수상한 신앙’이나 ‘절실’ ‘실체가 모호한 국가론’ ‘자식에 대한 집착’ ‘사기에 가까운 돈벌이’ 혹은 ‘길들여진 일꾼을 좋아하는 회사’에 매달리기도 한다. 고독과 불안에

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에 들어가지만, 무리 속에서도 고독과 불안은 떨쳐낼 수 없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이 책은 고독과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방법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방법을 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고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고독하고 불안

인기속 진행된 저자의 특강 묶어 성취감 높은사람 고독과 불안감 커

한 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것을 떨쳐내는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고독과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무리에 섞여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독과 불안이라면, 그것을 마음에서 없애거나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

이다. 피하지 않는 마음이 삶을 조바심치지 않게 하고, 당당하고 긍정적인 힘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혼자는 불안하고 비참하고 창피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고독을 피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폭발적인 인기 속에 진행되었던 저자의 와세다 인생 특강은 이렇게 책으로 출간되어 일본에서 3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그 만큼 일본 사회 역시 개인들의 고독과 불안이 하나의 대중 심리 현상임을 증명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안정된 사회에 사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개인적 성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들이 느끼는 고독과 불안은 평균치를 넘어선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저자의 말처럼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도 고독하고 불안한 것”이 다가올 사회의 심리적 특징이라면, 우리 역시 앞으로 그런 삶에 당황하지 않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벤더

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허탈아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 장 (24.5cm) 약 1시간 10분 / 단 (14cm)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은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이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가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불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